



**배움 넘어  
세상을 향해  
깊어지는.**

모든 학생을 '열린 세계인'으로 키우는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  
배움 넘어 세상을 향해 더욱 깊어지는  
넉넉한 상상력을 당신께 보냅니다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116, Samseongyo-ro 16 gil,  
Seongbuk-gu, Seoul, 02876, Korea  
www.hansung.ac.kr

한성대학교는 인재 한명 한명을 위해  
세상을 움직일 반짝이는  
상상력을 키웁니다.

**별이, 밤하늘을 흔든다**



서로 다른 빛깔이 모여  
세상에 **하나뿐인 상상**이 펼쳐 피어나다



# CONTENTS

Hansung University Magazine  
2018 Autumn Vol. 103

06	Focus on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상상빌리지!
09	Special Issue	2018 한성의 변화, 그리고 미래
14	Hansung, Now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걸음
16	상상 마에스트로	'완성형 연출'이 아닌 '발전형 연출'을 꿈꾸는 스타 PD
20	상상 크리에이터	한계를 극복한 팜방울의 소중함
24	상상피디아	영화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AR과 VR의 신세계
26	상상은 Unlimi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경쟁력이 되다</li> <li>• 나만의 시각으로 본질을 파악하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li> <li>• 상상력으로 '가상의 현실'을 '나의 현실'과 융합하라</li> </ul>
32	트렌드 IT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실전 가이드
34	Hansung Insight	정부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36	상상은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마음 넉넉한 교수님</li> <li>• 현실과 꿈 사이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li> </ul>
42	With Hansu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수불부(流水不腐)'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다</li> <li>• 열정 넘치는 선배에서 존경받는 스승으로</li> </ul>
46	Hansung News Highligh	
48	Hansung News	
54	상상빌리지 기부금 안내	
56	2019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59	2019 Hansung Planner	





#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상상빌리지!

한성인, 꿈의 기숙사 '상상빌리지'  
12월 완공 예정

학교 인근 주변에 방을 구해야만 하는 지방 학생들과 유학생들에게 날로 높아지는 월세는 한숨을 쉬게 만드는 큰 숙제이다. 이런 학생들의 시름을 덜게 해주는 단비 같은 소식, 한성대 기숙사 <상상빌리지>가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공공 행복기숙사 명칭 공모를 통해 이송현 학생의 <상상빌리지>가 1등으로 당선되었다. 한성인들의 상상력이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는 공간, <상상빌리지>가 내년 3월 입주를 목표로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한성인들의 따뜻한 휴식처가 될 <상상빌리지>를 살펴보자.

## 상상력을 품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상상빌리지>

상상빌리지는 우리 대학의 부족한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학본부에서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약 320명 규모의 기숙사로서 건립이 추진 되었다. 2017년 9월에 착공되어 2018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 연면적 6,771.70m<sup>2</sup>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서 2인실 162실, 1인실(장애인용) 2실로 총 32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지하 2개 층은 세탁실, 공동취사장, 매점, 휴게실등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상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대학은 사학진흥 재단과 공동으로 기숙사를 건립, 운영하게 되며 방학 중에는 중·고등학생들의 방중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숙사 완공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깊다. 기숙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존의 시설보다 향상된 교육 환경과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방학생들

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학습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기숙사실은 4인 1실이어서 다소 공간이 좁고 휴게실 등의 복지 공간이 부족하였다면, <상상빌리지>는 모든 기숙사실이 2인 1실이고, 세탁실, 휴게실, 세미나실, 매점 등의 다양한 복지 시설이 마련되는 신축 생활관으로서 기존 기숙사보다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현재 <상상빌리지> 관리를 위한 생활관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 2019학년도 1학기 기숙사생은 생활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될 예정이다. <상상빌리지>의 입사 기간은 타 대학의 운영 추세에 맞춰서 한 학기 뿐만 아니라 6개월 및 1년의 장기간도 고려될 예정이다.

## 많은 분들의 마음으로 지어진 <상상빌리지>에서 학생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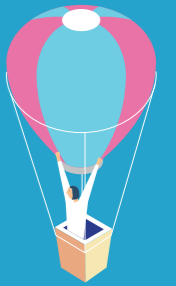
“<상상빌리지>가 완공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인 중에는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교 주변에 지방 학생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비싼 월세는 학생들의 가정에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는 이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총장님 이하 여러 동문들의 기부금과 마음을 표현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상상빌리지>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주거 환경이나 기숙사 환경이 넉넉하지 못해 교수의 한 사람으

로서 마음의 빛이 있었는데, 앞으로 <상상빌리지>가 완공되면 한시름 놓을 듯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 최상의 기숙사 <상상빌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대중 총무처장



# 2018 한성의 변화, 그리고 미래



한성에게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와 업적으로 빛나는 한 해였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구조 조정,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의 혁신 요구 등 어려운 교육 환경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융합의 시대적 흐름과 미래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트랙제'는 이제 안정된 학사구조로 자리 잡아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2018년 한성대학교가 이루어낸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살펴보자.



## 01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선도 대학

우리 대학은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4학년 학생이 대상인 일학습병행제와 3·4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장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학습병행제는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에 취업을 확정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인재를 선점할 수 있고, 학생은 취업 걱정없이 실무능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현재까지 참여한 학생은 총 691명이고, 정부지원금은 38억원에 달한다.

질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5명의 전담교수가 학생 개인별로 면접은 물론 실습 전체 과정에 대해 상담·관리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양적인 성과뿐만 사업의 질적인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평가를 시행한 2년 모두 우수대학(A등급)으로 선정되어 "IPP형 일학습병행제" 선도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구축하였다.

IPP사업단의 실적이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교육부 2주기 대학 평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우리 대학의 현장실습을 위하여 향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 총괄 : 조세홍 교수**  
(IPP사업단 단장 / 컴퓨터공학부 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트랙)

- IPP형 일학습병행제 우수 운영대학 성과



## 02 자율개선대학 선정

본교는 1단계와 2단계로 실시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최종적으로 2018년 9월 4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감축 권고나 별도의 제재 없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즉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교육 여건인 대학운영,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임을 인증 받은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본교 구성원들의 하나로 된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에, 본교는 특수목적 사업 신청 및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향후 3년간 정부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 일반재정지원금(대학별 연간 30~90억원 내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원받은 재정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둔 한성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수립된 혁신과제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로써 학생성공을 위한 한성대학교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 총괄 : 서은경 교수**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위원회 위원장



## 03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

2018년 8월 10일 선정된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재직자·성인학습자의 대학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대학에 유연한 학사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지역수요를 고려한 성인 친화적 학사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 명지대, 부경대, 제주대, 조선대 등 총 21개 대학이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선 1년간 총 9억 원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1979학년도부터 시작한 야간대학 및 평생교육 운영 경험을 통해 축적된 한성대학교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평생학습시대 도래에 맞춰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체제 구축 및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수도권 최고의 평생교육 중점대학'으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플러스대학>을 신설하였으며, 2019학년도부터 법·행정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비즈니스컨설팅학과 총 4개 정규 학위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미래플러스대학>은 2019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총 90명의 학생을 모집하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성인학습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총괄 : 노광현 교수**  
(기획처장 / IT융합공학부 사물인터넷트랙)

-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총괄책임자



## 0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취득

2017년 12월 우리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고, 인증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 대학들의 질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인증 필수 지표인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핵심여건 지표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인증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 심사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우대, 국제화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 우대 혜택을 받는다.

**사업 총괄 : 김승천 교수**  
(국제교류 원장 / IT융합공학부 사이버보안트랙)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 사업



## 05 VR/AR 지원제작센터 구축사업 참여기관 선정

2018년 4월 20일 선정된 VR/AR 지원제작센터 구축사업은 서울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VR/AR 콘텐츠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업 기반 육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양질의 콘텐츠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형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밀착형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의 VR/AR 특화 사업모델 개발 환경을 지원한다. 한성대학교 창업지원단 VR/AR 제작지원센터에서는 VR/AR 산업분야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술력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우수한 아이템 및 창업자를 선발하여 체계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VR/AR 발굴 & 개발지원 프로그램 'S.T.A.R' (Seoul Top Ar vR)을 운영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VR/AR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VR/AR 제작지원센터에서는 공간지원과 네트워크지원과 같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VR/AR지원제작센터는 VR/AR 산업의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VR/AR 지역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업 총괄 : 홍정완 교수**  
(창업지원단 단장 / 스마트경영공학부 컨설팅트랙)  
• VR/AR 지원제작센터 구축 사업  
책임자 : 김효용 교수 / ICT디자인학부 영상·애니메이션트랙



## 06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 선정

특허청에서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기반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대학은 2017년 12월 6일 제7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에 최종 선정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은 대학(원)내 지식재산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학생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련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한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한성대학교 주변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고취 및 이해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지식재산 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은 대학의 교육 목표에 따라 장기적으로 '창의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성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사업 총괄 : 홍정완 교수**  
(창업지원단 단장 / 스마트경영공학부 컨설팅트랙)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  
책임자 : 이상복 교수 / 스마트경영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트랙



## 07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선정

2018년 6월15일 우리 대학은 '2018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중 'Smart Fashion & Life Style' 의 <상상랩>으로 대학으로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학교 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2층 단독 건물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11월7일 <상상랩>을 정식 오픈하였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에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여 창의적인 메이커들의 방문과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상상랩>에는 3D 프린터, 3D 스캐너, 디지털 UV 프린터,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컴퓨터 자수기, 재봉틀 등 다양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패션과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혁신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아이디어 개발과 상품화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우리 대학 학생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향후 2023년까지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과 대학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메이커들을 발굴하고 지역주민 참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상랩>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대문 및 대학로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성북구만의 'Smart Fashion' 특화 브랜딩을 진행함으로써 패션의 혁신공간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총괄 : 홍정완 교수**  
(창업지원단 단장 / 스마트경영공학부 컨설팅트랙)  
• 2018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책임자 : 김복희 교수 / 융합교육과정





김형석 대표 / (주)팝애평아트팩토리

#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걸음

한성대·팝애평아트팩토리 업무 협약식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12일, (주)팝애평아트팩토리와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및 문화교류사업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청년작가를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며 청년들의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성과물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 상상력 가득한 젊은이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다

소위 '선수' 들은 서로를 알아본다고 했다. 김형석 대표가 이끄는 (주)팝애평아트팩토리와 한성대의 만남이 바로 그러하다. 우연한 기회에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한디원) 시각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은 (주)팝애평아트팩토리의 '러브콜'로 협약식을 체결하기까지의 인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디원 시각디자인과 박동주 교수는 처음 (주)팝애평아트팩토리의 연락을 받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여서 적잖이 놀랐고 또 기뻐했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니 만큼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작곡가 김형석 대표가 이끄는 (주)팝애평아트팩토리는 국내외 최초로 파인아트, 팝아트 사진작가, 그래피티, 한국화, 조소, 피규어, 웹툰, 미디어아트, 가상현실 등 전 방위에 걸쳐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이며, 현재 100명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한디원 시각디자인학과는 대중과 함께 예술작품을 즐겨보자는 취지에서 5년 전부터 학생들의 작품전을 성수동의 카페에서 개최해오고 있는데, 마침 전시를 본 (주)팝애평아트팩토리 소속 작가가 '선선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발견'이라고 회사에 이야기해 결국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상상력 가득한 젊은이의 재능을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집단이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 상상력을 기반으로 최고의 협업작품이 탄생하길

미완의 대기, 학생시절의 작품들은 완성도는 조금 못 미칠 수 있어도 젊은 감각의 재기발랄함이 있다. 반면 기성작가들은 숙련도 높은 완성작을 기대할 순 있지만, 풋풋한 신선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이 둘을 서로 보완하고 채워갈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업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대학이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사용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학생들의 상상력을 배양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주)팝애평아트팩토리의 공동 작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성작가들이 움직이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성인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평가받은 만큼 기성작가와 학생들의 협업이 시너지를 내는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 '완성형 연출'이 아닌 '발전형 연출'을 꿈꾸는 스타 PD

오진석 감독 / 국문학과 97학번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드라마왕국'이다. 안방극장을 찾아온 수많은 시청자들을 매료시켰고, 그 인기는 전 세계로 퍼져 '한류열풍'을 일으켰다. 16년차를 맞아 '넷플릭스 드라마'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오진석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현실기반의 리얼 스토리에 따스한 시선을 담다

우리가 즐겨 보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 현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태프들이 투입된다. 그리고 이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감독의 몫이다. 신속한 결정, 정확한 판단, 현장을 통솔해야 하는 만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함께 수반되므로 감독의 자리는 책임도 막중하고 스트레스 또한 심한 직업군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에 만난 오진석 감독의 피곤함이 깃든 얼굴이 현장의 막중한 무게가 그의 어깨에 실려 있음을 공감하게 한다.

현재 제작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촬영을 위해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오진석 감독을 만나기 위해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는데, 변수가 많은 드라마 제작 현장 특성상 배우나 제작진 또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니 감수할 수밖에. 마침내 긴 대기 끝에 그를 만나니 반가움이 배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재 찍고 있는 그의 드라마가 20대 청춘들의 이야기여서 오랜만의 모교 방문이 남다른 의미가 있을 듯하다.

"현재 찍고 있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는 SBS 하우스 PD로 16년간 있다가 프리랜서로 나와서 첫 제작을 맡은 작품이라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정현정 작가가 기획한 작품이기도 하고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연출을 맡게 됐죠." 오진석 감독이 정현정 작가의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소위 '백마 탄 왕자님'과 같은 설정보다는 실제 있을 법한 현실을 베이스로, 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풀어내기 때문이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낸 남녀가 커가면서 어느새 사랑의 감정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 주요 스토리다. 큰 틀만 보자면 약간은 '클리셰'한 내용일 수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잘 사는' 대학생들의 로맨스가 아니라 아프면서 성숙해지는 20대 초반 젊은이들의 성장기를 담고 있다. 성장하는 캐릭터, 소위 '성장캐'를 좋아하는 오진석 감독인 만큼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인물들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청춘들의 성장통'을 따스한 시선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며 고민하는 요즘의 대학생들이 공감할만한 작품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 낭만을 꿈꾸던 문학도, 드라마 PD로의 변신

오진석 감독은 한성대 국문과 97학번 선배님이다. 글을 쓰고 싶어 국문과를 선택했고, 재학 시절 여러 공모전에 작품을 내며 꽤 많은 습작을 했던 열혈 국문학도이기도 했다.

“제가 다니던 시절의 ‘국문과’는 낭만과 멋을 찾던 마지막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글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술도 많이 마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소위 ‘자유로운 영혼’을 용인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IMF여파로 힘든 97학번이었고, 그때도 스펙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했었지만, 지금 후배들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그는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우리 때는 국문학도로서의 낭만이 있었다’고 말하고 웃는다. 그리고 그 시절의 낭만은 그가 오늘날 드라마 PD로 탄탄한 내공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평생 글을 쓰며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터. 원래부터 서사를 다루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오진석 감독은 이 일도 하면서 생활도 가능한 길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드라마 PD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4학년 1학기, SBS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드라마 PD로 입사하면서 ‘글 쓰는 이’ 오진석이 아닌 ‘스타PD’ 오진석의 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학생 시절에 입사가 된데다 연극영화 전공이 아니다 보니 드라마 메이킹에 대한 실무적인 것을 배운 적이 없어서 현장경

험을 쌓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SBS 하우스 PD로 있으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접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연출 시절 소위 ‘막장코드’의 아침드라마를 여러 편 진행했고, 연출 PD로서 멜로물인 <결혼의 여신>과 코미디 장르인 <모던 파머>를 연출했고 <용팔이>로 메디컬 액션 장르를, <엽기적인 그녀>로 사극 연출까지 할 수 있었던 만큼 드라마 PD로서 다양한 장르를 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해한다. SBS 하우스 PD 기간 동안 자신에게 더 맞는 장르가 무엇인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졌던 까닭에 이제 회사 울타리 밖으로 나온 연출가로서 앞으로 그가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자신의 소신대로 준비하라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방송국 PD는 선망하는 직종 중 하나다. 그 어렵다는 ‘방송국 입사고시’의 벽을 한 번에 넘어섰고, 그것도 4학년 재학 중에 직장인이 되었으니 오진석 감독에게 그 비결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상위 스펙의 학교에 대한 인지도는 분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입사시험을 치르는 동안, 그리고 회사 구성원으로서 신입공채에 참여하는 입장이 되면서 막연

히 생각할 수 있는 ‘채용비리’, ‘불합리’ 등의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문과 출신으로서 자신의 스펙이 뒤쳐지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오진석 감독은 방송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조직사회는 생각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만큼 시중에 떠도는 소위 ‘~일거야’, ‘~카더라’ 따위의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미리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소신대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 또한 잊지 않는다.

“학교가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익, 상식은 기본으로 준비할 것이고, 전공에 대해 집중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격적인 토론형 중심의 수업이 학과에서 이뤄졌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드라마

제작 환경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미리부터 하지 말 것, 우리 사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움직인다,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선배로서 들려주는 진솔한 조언인 만큼 마음에 새겨도 좋지 않을까.

이번 넷플릭스 드라마가 회사를 떠나서 연출을 맡은 첫 작품이다 보니 솔직히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일 터. 그간 환경을 바꾸는 워밍업 차원에서 <첫사랑은 처음인지라>에서처럼 섬세한 연출을 요하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싶고, 기회가 닿는다면 좀 더 스펙터클한 대작에도 참여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한다니 앞으로 보여줄 ‘오진석 감독다운 드라마’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오진석 감독이 생각하는 상상력의 원천이란?

### 닥치는 대로 많이 보고 쓰고 느껴라!

“드라마 연출이 상상이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이라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영화나 드라마, 공연을 보면서 피로도 풀고 다시 연출하는 에너지를 쌓아가는 편이라 상상력을 기르기엔 많이 보고 쓰고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 한계를 극복한 땀방울의 소중함

'Star of Canaan Dance Competition' 금상수상

이창희 / 무용학과 14학번

지난 8월 초, 홍콩에서 열린 국제 발레콩쿠르 'Star of Canaan Dance Competition'에서 시니어 부문 1등상인 금상과 더불어 베스트 남자무용수상까지 거머쥐면서 2관왕의 영예를 얻은 우리 대학 무용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창희 학우(14학번)의 반가운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다.

###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니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발레에 입문했다니 남들보다 무척이나 늦은 시작이 아닐 수 없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레리노로서 자신의 영역을 착실하게 닦아가고 있지만, 이창희 학우는 발레를 하게 된 계기가 자신이 생각해도 좀 어이없어서 웃음이 난단다.

“주변에 발레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소개로 발레를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만 해도 남성 발레 무용수가 귀해 희소성이 있던 시절이다 보니 아무래도 대학에 진학하기도 유리할 것이라는 말에 ‘혹해서’ 그 길로 발레 학원을 끊게 된 게 인연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소위 끼가 넘치는 타입도 아닌 아들이 발레를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 끝까지 해보겠다는 아들의 말에 선뜻 길을 열어주셨고 이점에 대해서 이창희 학우는 늘 감사한 마음이다.

“발레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믿고 맡겨주시는 편이라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기타나 요리는 배우게 해주셨는데, 발레는 예고입시를 전제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하니까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씀드리니 저를 믿고 지원을 해주셨죠.”



그리고 아들의 신념을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모님 덕분에 오늘날의 발레 무용수 이창희 학우가 탄생할 수 있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한 성과로 그는 3학년 때 신인무용콩쿠르에서 1등을 했고, 올해 'Star of Canaan Dance Competition'에서 시니어 부문 금상과 베스트 남자무용수상을 수상했으니 시작이야 미약했으나 지금까지 결과는 이만하면 창대하지 않을까.

### 신체적 불리함을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

“사실 이번 홍콩 대회에서 상을 받을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대회가 1, 2라운드로 진행되는데 제가 마지막 번호다 보니 대기하면서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 유독 제 순서를 마치고 관객 환호가 엄청나게 커더군요. 일단 박수갈채를 받아 기분이 좋았고, 잘하면 입상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1등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는 질문에 그는 '준비는 늘 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회를 떠나 매일 많은 연습량을 소화해내는 그에게는 불필요한 물음이었을 터다. 그가 이토록 연습에 열중하는 이유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발레를 늦게 시작한 것 이외에 이창희 학우가 발레 무용수로서 안고 있는 핸디캡이 또 하나 있는데, 작고 왜소한 편이라 발레리노로서 신체적 조건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창희 학우는 자신의 핸디캡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더 많은 노력의 땀을 흘려야 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신체적 불리함까지 극복하려면 두, 세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발레는 바디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가 크고 흰칠한 서양 무용수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인 저로서는 남들과 차별화된 기술적인 스킬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콩대회에서 금상을 받게 된 것도 그의 탁월한 테크닉 기량에 높은 점수를 인정받은 결과였고, 이창희 학우 스스로도 기술적인 역량에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창희 학우의 하루 일과는 오전에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면 오로지 춤, 춤의 연속이다. 특히 무용과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특강으로 실기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매일 두 시간 춤

을 추고 그 이후 시간에는 개인연습에 매진한다. 많은 연습량은 그의 기량을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가끔 또래 학우들이 경험하는 캠퍼스 라이프가 부러운 순간도 있을 터다.

"춤추는 일이 참 고통스러운 작업인 것 같아요. 쉬는 날이 있을 수 없고 명절에도 대부분 혼자 연습해야 하니까 힘들고 외롭죠.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실기에 집중하다 보니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포기했어요."

당연히 힘들지만, 또 힘든 만큼 성취감이 커서 다들 이 맛에 춤꾼이 되는 구나 싶다 말하고 웃는다.

###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발레리노의 모습을 기대

한 기자가 강수진에게 '발레리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물었더니 '지금 나는 발레 무용수이고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발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창희 학우에게 발레를 사랑하는 이유를 물으니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즉답이 돌아온다. 멋진 공연을 보고 감명을 받았거나, 예술적 영감이 불타오르는 식의 드라마틱한 계기로 발레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춤이 좋아지고 또 춤으로 무대에 서는 일들이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란단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1학년 때 연습하다 부상을 당

해 발목 수술을 하면서 재활하기까지 공백기가 길다 보니 뭔가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으니 맥이 풀린다고 할까, 좀 처져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내가 설 곳은 무대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연습에 몰두했고 지금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4학년 2학기를 보내면서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은데 학교를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이창희 학우. 그간 많은 가르침을 주신 박재홍 교수님, 매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조언해준 서라벌 선생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단다.

'그냥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진 않다는 이창희 학우의 꿈은 독보적인 발레리노가 되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무용수가 되는 것이란다. 그의 나이 24살. 남성 무용수가 수명이 짧다 보니 10년 안에 세계무대에 서야한다는 생각에 갈 길은 멀고 마음 또한 바쁜 것도 사실이다. 당장의 계획은 내년 초에 열리는 미국 발레 오디션에 참가해 자신의 기량을 가늠해보는 것. 작은 배역부터 시작해 무대의 주역으로서 활약하는 것이 이창희 학우의 소망이라고 하니 그 날이 앞당겨 지길 기다리며 응원한다.

## 이창희 학우가 생각하는 상상력의 원천이란?

### 머릿속에 이미지를 투영하라!

"평소 유튜브나 SNS를 통해 발레에 관한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춤추는 모습을 제 머리에 그려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춤추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투영하지 않으면 춤을 출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 또 많이 생각해서 그려진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영화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AR과 VR의 신세계

IT기술의 진보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삶의 패턴은 많이 바뀌었다. 그로 인해 생소하고 비슷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각각의 개념이 혼재되거나 두 개념이 결합하여 새로운 용어를 낳기도 한다. 매스미디어나 생활공간에서 마주치는 AR, VR이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로 짐작만 할 뿐이다. 미래 4차 산업의 강력한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되는 두 개념과 이 둘이 합쳐진 '혼합현실(MR)'에 대해 알아보자.



## 진보하는 증강현실의 기술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하자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며,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자신(객체)과 배경·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큰 차이점이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혼합한 기술은 혼합현실(Mixed reality)이라고 한다. AR, VR, MR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현실을 구현해 사람이 이를 인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AR은 실제 현실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 보여주는 방식이고, VR은 모두 허구의 상황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R은 AR과 VR을 혼합해 현실 배경에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혼합시켜 제공하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증강현실 기술은 1968년 미국 유타대 이반 서덜랜드(Ivan Sutherland)가 개발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에서 출발했다. 1990년 보잉사의

엔지니어 톰 카델(Tom Caudell)이 항공기를 조립할 때 필요한 수만가지 부품 위치를 HMD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주는 장치를 개발했고, '증강현실'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처럼 산업용으로 적용된 증강현실은 센서, 디스플레이, 스마트기기 등의 발달로 교육, 쇼핑, 스포츠, 공연문화 및 게임 등의 다양한 분야로 그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나인언틱스에서 출시한 게임 포켓몬고(Pokemon Go)와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600년 전 천문도의 별자리를 띄우거나 석굴암 등의 문화유산들을 홀로그램으로 띄워 전 세계인들의 탄성을 자아낸 바가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증강현실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 학술 콘퍼런스인 'TED'에서 공개된 '식스센스(Six-sense)'라는 기기는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에 빔프로젝터 기능이 있어 공간에 영상을 투사하거나, 주변의 사진 또는 영상을 받아 들어 그에 해당하는 상세 정보를 보여준다. 이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럼 양손가락으로 이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고도의 증강현실 기술이다. 이젠 영화에서 보던 기술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2018년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1395년 제작된 '천상 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가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TV시청자들에게만 보인 장면이다. <출처: 중앙일보 18.07.16자 기사>

## 가상현실이 구현하는 미래의 모습

가상현실은 1938년 등장해 195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됐고 그 역사만 100년에 가깝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가상현실을 대중적인 용어로 성장시킨 이는 1985년 VPL을 설립해 VR HMD고글과 장갑을 개발한 재런 래니어(Jaron Lanier)다. 이 연구소는 가상현실 상품을 처음으로 판매했으나 9,400달러라는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인해 대중화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2012년 299달러의 '오쿨러스 리프트(Oculus Rift)'라는 획기

적인 헤드셋의 등장으로 대중화의 길이 열렸다. 이 헤드셋은 오쿨러스VR의 창업자 팔머 럭키(Palmer Luckey)가 개발한 가상현실 게임용 장치로 이 헤드셋을 장착하면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 그에 맞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선이 필요 없는 고성능 독립실행형 '오쿨러스 퀘스트(Oculus Quest)'가 출시되었고 VR기기는 스마트폰과 결합되는 구조를 취하는 경위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가상현실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16년 씨넷은 향후 VR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에 VR을 제대로 즐길 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점과 대중에게는 아직 비싼 가격, 헤드셋 무게와 어지러움증과 같은 극복할 과제 또한 제시했다. VR콘텐츠는 360도 1인칭 시점의 몰입도 높은 VR 환경으로 인해 게임과 성인물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OC5 키노트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공개한 '오쿨러스 퀘스트' (사진출처: OC5 영상 김우리)

## AR, VR 그리고, 미래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AR과 VR은 어느새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자리하여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관련 시장 규모는 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AR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무려 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는 AR과 VR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마음대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 해외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경쟁력이 되다

김일환 차장 / 문헌정보학과 91학번

대학시절 해외에서 그 나라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부를 하는 경험은 평생의 큰 자산이 된다.

한성대는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교환학생, 어학연수, 디즈니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170명의 학생들에게 해외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교류협력팀 김일환 차장을 만나 오늘날 대학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한성대 국제교류협력팀은 해외대학과의 협정을 체결하는 일에서부터 교환학생, 어학연수, 디즈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고, 외국 교류학생들을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대학도 국제화가 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 글로벌화 시키는 교육, 외국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캠퍼스 내 글로벌화를 해나가는 일 등이 국제교류협력팀의 주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성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대학에서 2학기 정도 수업을 들으며 전공, 교양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이며,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와 협약을 맺은 외국 대학에서 교양수업과 어학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디즈니랜드에서 6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하는 디즈니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어 학점도 따고 해외인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은 한성대의 공식 자매 대학을 가서 현지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클래스에 들어가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단순히 여행에서 느끼는 것과 확실히 보고 배우는 것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동시대를 사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현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다

한성대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외국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국제여름학교가 바로 그 일환이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된 국제여름학교는 영어권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어 강좌,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안동 하회마을, 경주, 창덕궁 등 주요 유적지 탐방과 한복 입어보기, 도자기 만들기, 초복 맛이 삼계탕 체험 행사 같은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대학들이 해외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해외유학박람회 개최해 외국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여름 단기 코스로 한국에 오는 대학 중 일 순위가 바로 한성대다.

“다른 대학은 학점위주로 아침부터 수업만 하는데 비해 우리 학교는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오후 시간에는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버디(Buddy)들이 있어 외국 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등 다방면으로 알찬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일환 차장은 요즘 외국 유학생들은 K-Pop에 열광하는 세대인데다 평창올림픽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방대하게 또 빠르게 퍼진 만큼 국제여름학교는 이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학창시절에 가져보는 해외경험이 개인의 스펙은 물론 든든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국제교류협력팀 직원들은 해외로 나갈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생활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한다. 언제든지 국제교류협력팀을 찾아와 궁금한 점을 묻고 소중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김일환 차장의 당부에 믿음이 간다.

# 나만의 시각으로 본질을 파악하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

국제공모전 K-design Award Gold Winner 수상

글. 오완근 / 제품디자인학과 14학번



## 세계를 향한 첫 도전, 나의 한계를 시험하다

K-디자인 어워드는 매년 매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선별하는 국제공모전으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와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자인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디자인 명문 RISD의 'Andy Law' 교수와 파슨스디자인스쿨의 'Andrea Ruggiero' 교수, 교토 예술대학교의 'Shingo Ando' 교수, 그리고 일렉트로룩스 'Thomas Johansson' 디자인 디렉터를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 34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진행됐으며, 24개국의 2,300여 작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중 9% 작품만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심사 및 평가를 받아 '위너'로 선정됩니다.

저는 이 공모전에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도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골드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작년 처음 공모전을 준비할 땐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공모는 우연치 않게 마감 3일 전에 알게 되었는데, 정말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고글을 디자인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제 한계가 궁금했어요. 디자인에 푹 몰입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3일이 지나갔어요. 3분가량을 남겨두고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3일 안에 내가 완성해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느라 상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릴 때 즈음 수상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졸업 작품으로 디자인 했던 밥솥 'kooC' 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품은 일인가구를 위한 밥솥입니다. 집밥을 그리워하면서도 밥을 짓는 번거로움과 귀찮음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쌀 냉장고를 밥솥과 결합했습니다. 쌀이 신선하게 보관되는 것부터 밥이 지어지는 과정까지 자동화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어플이나 제품을 통해 밥을 예약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쌀이 계량되고 씻겨 밥이 지어지고 1인분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 상상력에 대한 나만의 노하우를 키우는 법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에 의자를 그려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의자를 그립니다. 하지만 의자의 본질은 그런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돌덩이도 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의 본질을 꿰뚫고 나면, 의자에 관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더 다양한 의자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각으로 의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만의 상상력을 발전시키며 현재 제품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100억을 모으는 것입니다. 어떻게 꿈이 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100억은 평범하게 살아선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무엇인가 계속 도전하고 이뤄내야 합니다. 즉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뤄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런 도전을 하는 제게 잘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유튜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품디자이너 혹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스케치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구왕>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 상상력으로 '가상의 현실'을 '나의 현실'과 융합하라

제3회 여성엔지니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글. 이은미, 임채희, 최홍권 / IT 융합공학부 16학번



## 독학과 실험을 반복하며 이루어 낸 성과

저희는 한성대학교 IT응용시스템공학과(현 IT융합공학부) 재학 중인 16학번 이은미, 임채희, 최홍권입니다. 지난 2018년 1학기 때 3학년 1학기 입에도 불구하고 1년 빠르게 종합설계 프로젝트 과목을 이수하면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을 지켜보신 조혜경 교수님과 이후진 교수님께서 제3회 여성 엔지니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결과물을 다듬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학회 여성과학기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제3회 여성 엔지니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전기공학 및 인접분야 전공 여학생들이 미래 엔지니어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는 10개 팀이 참여,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겨뤘고, 저희 팀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학과에서 배울 수 없었던 VR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독학과 실험을 반복했던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같은 부분을 붙잡고 반복하는 시간이 길어 지치는 일도 많았지만, 도움을 주시는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명의 팀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서로 지칠 때마다 자극과 용기를 주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내대회가 아니라 외부 대회이다 보니, 발표 준비에 부담감도 크고, 많은 노력을 쏟아야 했던 점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 상상한 내용을 도전하면서 실현시키는 노하우

이번 대회에 저희는 <VR과 제스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콘텐츠 및 HW 개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살피다 보니 보완할 점을 발견했고,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를 더해보며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도전하는 것 자체에 자신감이 붙어 현재는 여러 공모전과 대회에 망설임 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은 바로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또한 작업 진행 중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서적으로 책을 찾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상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상한 내용을 도전하면서 해결한다면 그 작업을 정말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덧붙인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상력을 위해 IT쪽에서 해볼 수 있는 일 중 가장 쉽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술과 제품을 찾아보고 융합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3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시간동안 더 많은 것을 보고, 만들고,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VR 기술을 접하고 경진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VR을 응용하는 기업 쪽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더 다양한 아이디어에 도전해보는 대학생활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실전 가이드

취업시즌이 시작되었다.

대학 입학에 비해 눈물 원고지 칸을 채우던 막막함을 취업용 '자기소개서' 앞에서 다시 느껴야만 한다. '취준생'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자소서' 쓰기, 자신에 대해 소설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자소서'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은 '자기소개서' 질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보자.



## 질문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라!

### 지원동기 **당신은 우리 회사에 진짜로 관심이 있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을 뽑고자 한다. 그래야 오래 근무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지원 기업이 하고 있는 일과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저는 이 회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를 강조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과 나의 구체적 경험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역량이 지원 회사에 혹은 지원 직무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어필해주는 것이 좋다. 다만 남들도 다 쓰는 열정이나 노력은 인사담당자들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자칫 회사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는 오류를 범하는데, 인사담당자들은 당신보다 회사에 대해 열매는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회사에 대한 설명을 줄줄이 늘어놓기 보다는 내가 무엇을 회사에 일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필하자.

### 성격의 장단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당신의 성격이 관찮을까요?**

회사는 좋은 성격과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을 뽑고 싶다. 그것의 기준은 조직 내에서 얼마나 잘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가이다. 성격의 장점은 지원 업무와 관련해 나의 성격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어필하자. 우선 큰 장점을 첫 문장으로 시작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테일한 설명은 경험을 통해 증명하자. 사실 힘든 것은 단점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이다.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업무 수행이나 조직 생활에 치명적으로 손해를 끼칠 만한 것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 보다는 당신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조직 내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 성장과정 **당신의 가치관이 우리 회사랑 맞을까요?**

성장과정이 궁금한 이유는 과거 당신의 인생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회사에서 생활할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해보는 것이다. 우선은 지원 회사가 중시하는 가치관을 찾아보자. 그중에 나의 인생 이력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치를 선택하자.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경험을 기억 속에서 소환하자. 단,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설명하지 말고 기승전결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자. 먼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가치관을 임팩트 있게 한 줄로 설명하자. 그리고 나의 경험을 짧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 경험을 통해 정립된 가치관과 이 경험이 지원 회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강조해주며 마무리하자.

### 입사 후 포부 **당신은 우리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은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다. 우선 지원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재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 자신의 포부와 꿈을 이야기하며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포부가 아닌 근거 있는 포부와 계획이 있어야 눈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구구절절하게 늘어놓는 것은 금물! 짧고 굵게 마지막 방점을 찍어 보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오·탈자 맞춤법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 동시에 여러 회사를 지원하다 보면 회사 이름이 틀리게 적혀진 경우가 있다. 적어도 지원 회사 이름이 틀려서는 안 된다!
- 메일 제목은 정확히! 본문에도 기본 인사와 첨부 파일 설명과 마무리 인사는 하자!
- 압축 파일에 오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
- '귀사' 라는 표현보다는 지원하는 회사의 이름을 적자!

# 정부는 경제 정의(justice)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글. 김상봉 교수 / 경제학과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보고 있다. 거시경제학에서 성장이론과 실제에 대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로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의 정의는 처분가능소득이다. 즉, 세전소득에서 세금, 4대보험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을 제한 것이 처분가능소득이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등을 통해 세전소득을 늘려주려고 하지만, 처분가능소득은 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주 52시간 근무나 주휴수당으로 인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간 수 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들의 세전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소비는 일시에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 정도임을 생각하면 큰 숫자이지만, 소비는 일시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이를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일시에 늘더라도 소비가 일시에 같이 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양극화가 가중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에 비해 평균 가계소득이 낮아지는 이유는 가계소득 분배비율이 낮아져 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평균 가구원수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영향 등에 기인한다. 또한,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증감률을 보면,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나 구직단념자와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발표 자료에서 모두 빠져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증감률은 명목임금에 대한 증감률이고, 1분기 물가상승률이 1.3%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구는 2분위(하위 40%)까지 실질소득이 감소하였으며, 근로자가구는 4분위(하위 80%), 두 가구를 다 감안하면 3분위(하위 60%)까지 모두 실질소득은 감소하였다. 즉,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고, 고용을 유지하는 가구는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인해 임금은 줄고 있다.

연령계층별로 고용을 보면, 최근에 가장 심각한 취업자 수 감소를 겪는 층이 30대와 40대인데, 2015년 이후로 취업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월평균 10만 명 정도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임금총액은 근무시간 감소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60대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인구구조로만 설명하기 힘들다. 고용보조지표인 확장실업률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확장실업률에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취업자 중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의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가

포함되어 체감실업률로 해석될 수도 있다. 2018년 9월의 확장실업률은 11.4%로 일반적인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7%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4월 이후 광공업 중 제조업 감소가 눈에 띄는데,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의 영향, 경기침체 국면으로의 진입, 임금정책과 관련된 부분 등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업 중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등으로 설명될 수 있고, 교육서비스의 감소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나마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와 관련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분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종사자 지위별과 취업시간대별 고용을 보면 고용의 질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7년 상반기 월평균 33만 명, 하반기 40만 명이 늘다가 2월부터 취업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하반기에 30만 명에 못 미치고 있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2018년 5월부터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용근로자 비중의 증가폭은 제한되고 있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비임금근로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비임금근로자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9월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8년 1월부터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보험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1~17시간 취업자가 2018년 3월 이후로 꾸준히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들은 쪼개기 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의 고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나라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고용전망에서 하반기 취업자 수는 최대 월평균 4.8만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9.5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정의(justice) 실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바로 산업 경쟁력부터 키워야 한다. 고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정책이 나와도 산업경쟁력과 관련 없으면 힘들다. 현재의 우리의 주력 업종은 1~2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6대 주력 업종 중에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소 및 중견기업 위주로 키우고, 빅데이터·블록체인·IoT·AI 등의 신산업에서는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키워 내야 한다.

#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마음 넉넉한 교수님

2018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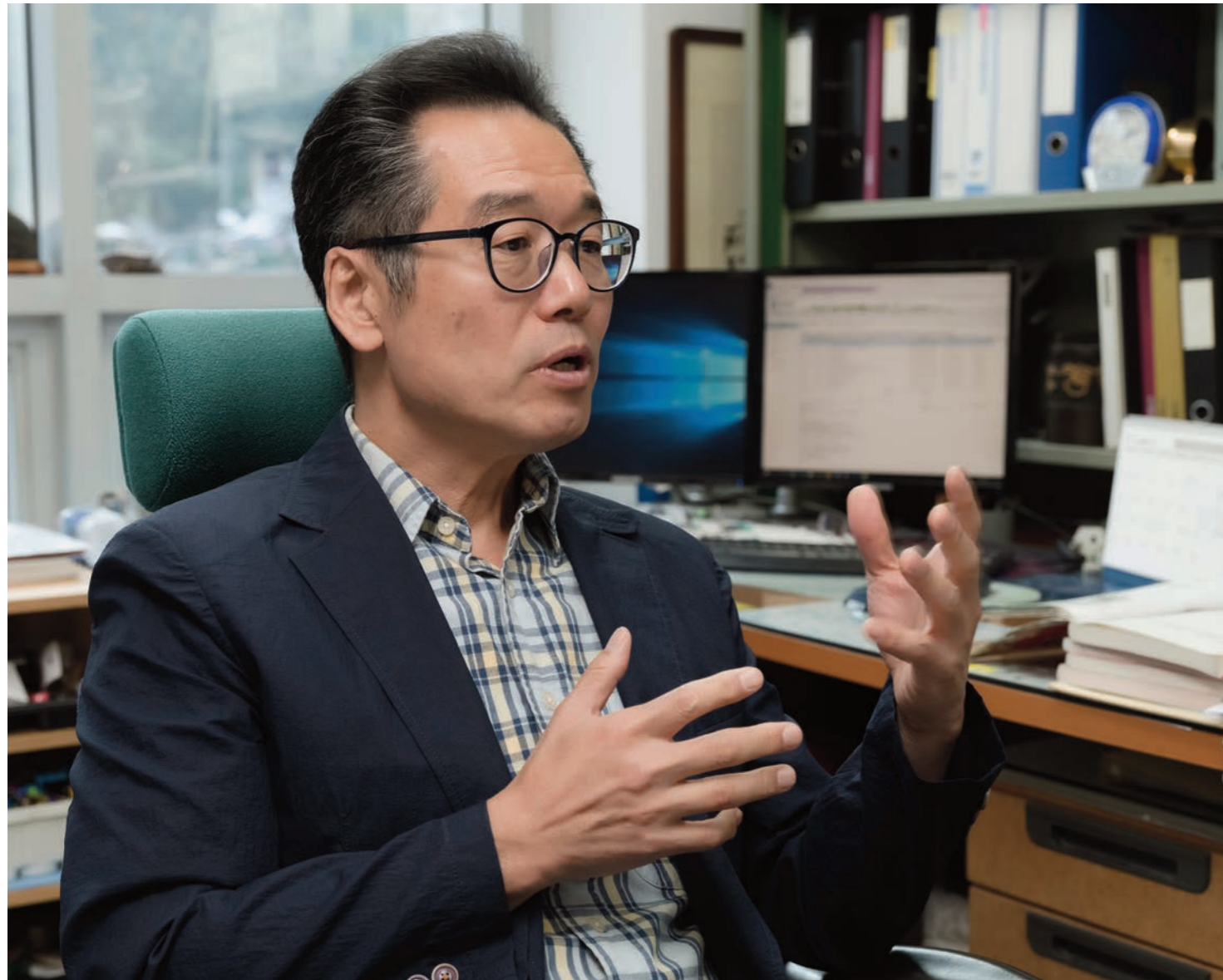
이재득 교수 / 산업경영공학과

흔히 봉사는 나누는 기쁨, 함께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지만 선뜻 시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남을 돕는 '거창한 일' 인 만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행위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다가오는 봉사활동을 20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올 여름 20명의 한성대 학생들을 이끌고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온 이재득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봉사활동을 위해 체력관리에 힘쓰는 단장님

이재득 교수의 하루일과는 매일 아침 10km달리기로 시작한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그의 철칙이기도 하다. 풀코스를 포함해 마라톤 대회에서 50회 이상 완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재득 교수가 체력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쓰는 것은 지속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또한 스페인어, 영어 등 해외봉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다니 이만하면 '준비된' 봉사단장으로 손색이 없으리라 할 것이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모임의 성격이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성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총 다섯 번의 해외봉사 경험을 했고, 올 겨울방학을 맞아 또 한 번 나가기 위해 단장직을 지원하게 되었어요.” 2018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36기 단장으로 올 여름 라오스를 다녀온 그는 겨울에 있을 37기에 대비해 일찌감치 단장 지원을 마친 상태다. 낯선 해외 오지에서 20명 단원들을 통솔하는 단장으로서 책임감이 클 법도 할 터.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 여기기에 그는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단장직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의 봉사활동을 가면 현지 아이들과 놀아주고 교육시켜주는 것이 주요 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과학, 음악, 미술, 체육을 가르치고 벽에 칠을 새로 해주거나 환경미화, 컴퓨터 수리 등을 해주고 오는 일이라 사실 우리가 다녀간다고 해서 대단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누군가가 다녀가서 현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일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득 교수는 봉사단이 2주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뭔가 거창하고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놀아주었다는 사실을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다가 떠나는 날 단원들과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이 있어서 다시 해외봉사를 결심하게 되는 것 같다 말하고 웃는다.

### 봉사,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

오랜 봉사활동을 통해 이재득 교수는 좋은 사람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얻은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학생들과의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는 제자들을 위해 8번의 주례를 서기도 했고, 사회생활로 지친 제

자들을 위로하는 멘토가 되어주기도 했다. 제자들 또한 이재득 교수가 연말마다 진행하는 연탄봉사에 참여해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저는 사회로부터 혜택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시간과 재능이라면 이를 봉사에 써보면 어떨까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득 교수는 봉사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 나 자신에게 수여하는 상이라 말한다. 봉사하고 나면 혼자 뿌듯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런 스스로의 만족이 있기에 다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된다니 20년 꾸준한 봉사활동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나 보다.

“봉사활동을 나간 단원 한 명이라도 다녀와서 생각을 바꾸고 꾸준하게 봉사를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 시절에 봉사활동을 경험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겸손해지게 되죠. 음식 낭비도 덜하게 되고,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게 봉사의 의미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 항상 이들을 생각하며 살자, 그러면 나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이재득 교수에게 봉사의 의미를 물으니 ‘자기만족’이라 답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만큼 뭔가 가졌다는 것, 그것이 체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상은 Share

## 현실과 꿈 사이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

코스타리카 한국어교육 봉사 활동

글. 이재윤 / 한국어문학부 09학번





### 오랜 시간 품었던 꿈을 코스타리카에서 펼치다

저는 코이카 일반 해외봉사단원으로서 올해 5월부터 2년간 코스타리카 국립직업기술훈련원(INA CENECOS)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코스타리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2달간의 적응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지는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든 새내기 봉사단원입니다. 스무 살부터 품어왔던 코이카 해외봉사라는 꿈을 올해 스물 아홉 살이 되어서야 이루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고,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해외봉사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한성대학교에 입학한 첫 학기에 이태주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코이카(KOICA: 한국의 대외 무상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기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해외봉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성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대 해외봉사단 14기로 아프리카 케냐 나망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교육 및 문화봉사를 했고, 한성 석세스 프론티어로 서유럽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진 학우들과 소통하고 싶어 세계시민교육 동아리인 UNAI ASPIRE 한성대 지부를 만들어 다양한 스터디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한류의 인기가 많은 중남미에서 한국어 수업을 준비

제가 파견된 국립직업기술훈련원은 코스타리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운영 기관입니다. 최근 중남미에서는 한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늘어나다보니 이번에 처음으로 직업훈련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규 단원으로 오게 되어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모두 하게 되어, 여러 번의 커리큘럼 디자인 회의를 거쳐 현재 모든 문서 작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결제가 진행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는 아직 없어 아쉽지만, 기관의 많은 교직원들에게 지난 추석과 한글날에 한국 과자를 선물로 나누어주면서 한국의 명절과 한글에 대해 소개했더니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또 기관장의 제안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교직원들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K-POP이나 드라마 말고는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가 끝나고 다양한 질문이 오고 갔는데, 한국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

사실 저는 걱정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활동들의 이면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를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부딪히며 스스로 깨닫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고군분투하며 적응 중입니다. '언어'가 가장 힘든 부분으로, 기초가 전혀 없이 약 3달 정도의 스페인어 수업만 듣고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하고 대화를 하려다 보니 눈치와 바디 랭귀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점은 '문화의 차이'입니다. 한국만큼 빠르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참 바쁘게 살아가지요. 코스타리카는 다른 중남미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문화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조금씩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힘든 점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동기 단원 선생님과 같은 기관에 파견되어 같이 출퇴근을 하며 서로 많은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봉사단원들과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수없이 마주하는 외로움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현지인 친구들을 초대해 음식도 같이 먹으며 코스타리카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생각과 태도의 변화로 스스로 단단해지는 시간

봉사활동을 시작하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은 생각과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막연하게 해외봉사를 꿈꾸었던 10대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케냐를 다녀오고,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봉사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점점 더 느낍니다. 제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만큼 이들과 진짜 소

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만큼 다양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나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문화와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더 노력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코스타리카에서의 2년 동안 제 자신이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고민하는 순간이 바로 도전해야 할 시기

저도 해외봉사를 나가기에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지만, 못하고 지나가면 정말 미련이 남고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떨어지더라도, 현지에서 적응하기 힘들더라도 도전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외봉사단에 지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내에서 훈련받는 내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선배 단원들이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경력보다는 태도, 능력보다는 인성'이라고. 어쩌면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2년 후 코이카 해외봉사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봉사활동에 집중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짝 예상해 본다면 귀국해서도 한국어 수업을 하거나 한국어교육학을 더 깊이 공부할 수도 있고, 스페인어권 국가로 다시 파견을 나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울 기회를 던져주기 때문에 저 역시 치열하고 즐겁게 고민할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그냥 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봉사나 국제개발협력 분야, 혹은 어떤 것이든 새롭게 도전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눈 딱 감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수불부(流水不腐)'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다

서예가 김장현 / 예술대학원 회화과

마음이 바라야 글씨도 바르고, 글씨를 보고 사람을 안다고 했다. 자암 김장현 작가의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성이 있고 힘차게 내뿜는 선 굵은 필체를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의 본성이 제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우리에게서는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 등장하는 힘 있는 휘호로 알려져 있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선배님이자 서예가 김장현 작가를 만났다.

### 떡잎부터 알아본 '서예계의 신동'

지난 1999년, 한국서예협회를 적잖은 고민에 빠지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제11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의 나이가 서른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것. 이전 수상자들은 보통 50대가 넘는 중견 작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신예가 출품한 첫 작품이 최고 영예를 차지하게 됐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터다.

“당시 서예협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너무 어린데 대상을 줘야하나 말아야 하나, 뽑아놓고 무슨 소리냐 이런 식의 갈등이 내부에도 있었다고 해요.”

나이를 떠나 공정한 심사기준을 선정된 작품인 만큼 결국 최연소 수상자에게 대상이 돌아갔고,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김장현 작가를 일컬어 '서예계의 신동'이라는 표현을 써서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쑥스러워요.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집성촌이다 보니 문중 어른을 뵈 기회도 많았고, 큰 아버지가 서당을 운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예를 접하게 된 영향이 크죠.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서예를 해왔으니 나름 구력을 쌓은 신인이라고 봐야죠.”

그가 처음 붓을 잡은 것이 중학교 1학년, 남다른 재능을 발견한 고등학교 담임의 권유로 김장현 작가는 본격적으로 서예에 입문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을 하던 그가 선택한 것은 공대. 졸업 후 대우중공업에서 엔지니어로 재직하던 시절 출품한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게 됐으니 떡잎부터 먼저 알아본 타고난 서예가가 아닐 수 없다.

“대상을 받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일단 큰 상을 받았으니 서예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겠다는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보통 공모전에 당선되고 작가활동을 하게 되는데 10~20년 걸릴 수도 있는 기간을 저만의 예술세계를 정립하는 시간으로 돌릴 수 있어서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김장현 작가는 운이 좋아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하지만, 탁월한 예술적 재능이 넘치기에 그는 '운칠기삼' 보다는 '기칠운삼'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나'가 주체가 되는 한성인이 되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다니던 직장을 접고 본격적인 서예가로서의 준비를 위해 김장현 작가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에 서예공부를 시작했다. 학문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며 폭넓은 예술세계를 확장해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까닭이다.

“당시 몇몇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서예를 전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 정보를 찾아보다가 '최대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한성대 회화과 강관식 교수님의 말이 너무 좋아서 한성대 예술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죠.”

도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서예계 분위기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었던 김장현 작가에게 한성대 예술대학원은 자유로이 공부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선택이 예술가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말한다. 그가 예술대학원에 입학한 2000년 당시 한성대는 전국에서 서예를 제일 많이 가르친 학교로 유명세를 탈 정도로 남다른 열정이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을 고마워하고 있다.

현재 그는 국내외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또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예가이다. 5번의 개인전,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축제 개막 퍼포먼스, 인사동 홍보관 개관기념 등 많은 전시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전각에 심취해 필체가 가지는 특유의 역동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예술작품은 감상하는 이의 시각에 따라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도 평가되듯이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의 형상에서 이미지가 남으면 그게 좋은 글씨고, 관객이 이를 읽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어요.”

예술가에게 상상력은 좋은 작품을 탄생시키는 양분이 되는 것인 만큼 김장현 작가는 후배들에게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취업준비나 스펙 쌓기에 대부분 할애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상황이 안타깝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고 살기 쉬워요. 저도 대기업 구성원으로 생활해봤지만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이며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을 위한 공부보다는 본인이 즐기는 가운데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수불부(流水不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을 한성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김장현 작가.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불필요한 것은 흘려보내고 생각을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이 한자성어로 전하고 싶었을 터다.



## 열정 넘치는 선배에서 존경받는 스승으로

정석순 교수 / 무용학과 02학번

2년 전 <한성순보>에서 그를 ‘무용가 정석순’ 이라 소개한 바 있다. 2018년 10월 다시 만난 그의 이름 앞에 ‘교수’라는 타이틀이 새로 생겼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맘을 흘리며 열정을 쏟아온 무용학과 연습실에서 이제 학생이 아닌 정석순 교수를 만났으니 청출어람이란 표현은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던가.

### 선배이자 교수, 열정과 냉정 사이

얼떨떨하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부담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란다. 지난 8월 중순 교수 임용을 받고 이번 학기 첫 강의를 맡은 새내기 교수의 솔직한 심정이다. 교수 채용 공고가 난 것을 알고 지원을 하긴 했지만 ‘실마’ 하는 마음이 컸던 터라, 아직 적응하는 중이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그 대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되고 보니 확실히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친구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구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할까요?”

‘교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직 어색하고 쑥스럽다는 그는 재학시절부터 자신을 지켜봐온 박영애 교수, 대학원 때 논문지도를 받았던 박재홍 교수에게 많은 것을 여쭙보고 도움을 얻는다는데 스승 앞에서는 여전히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 특히 교수라는 이름이 조금 쑥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다 말하고 웃는다.

현재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개인 공연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정석순 교수는 02학번 선배 무용수이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한다.

“무용학과 학생들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커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따라오기 힘들어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먼저 다가와 조언도 구하고 힘든 부분을 상의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15년 전의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시다.”

정석순 교수가 학생들에게서 예전의 자신을 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또한 많은 작업을 하고 노력해서 지금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던 시작점이 바로 이곳 학과 연습실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을 대할 때 막연히 편안하게 다가서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금 이 시기에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저 또한 겪어서 잘 알고 있어요.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나중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경험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며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교수 이전에 선배로서 후배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그는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제자들을 응원하고자 한다. 냉정과 열정 사이를 적절히 오가는 정석순 교수님으로서.

### 창작은 비우고 다시 채워가는 무한 반복

한성대 무용학과 02학번인 정석순 교수는 학사를 마침과 동시에 바로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님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원 시절에 배운 공부가 나중에 작품을 제작하고 안무를 구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는 무용을 하면 할수록 창작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늘 채울 수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려놓고 비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

“무용을 하는 것은 곧 창작을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슬럼프가 오고 고갈이 된 것을 느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끊임없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나를 채워 넣다 보면 본인도 힘들고 부작용이 생기기 쉬워요. 힘든 상태라면 내려놓고 비우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무용은 일상생활에서 얻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데 자신 스스로 앵글을 좁힌다면 우연으로 인한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없다는 정석순 교수는 가끔 프레임 밖에 숨을 돌리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게 되니 무조건 채워 넣기에만 급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단다.

“교수 임용을 받고 주변에서 축하 인사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은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후배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무용학과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했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영광이겠지요.”

현역에서 활동하는 무용수로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각오를 끝으로 정석순 교수와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 Hansung News Highlight



## ‘자율개선대학’ 선정, 자축파티 열리다

지난 9월 6일, 본교 상상마당 일대에서 ‘개강 자축파티(이하 자축 파티)’가 개최됐다. 자축파티는 지난 8월 우리 학교가 교육부 주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파티는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자축하는 의미로 열리기는 했지만, 개강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되기도 했다.

자축파티는 초청가수 버스킹 공연, 슈퍼스타 한성, 동아리 축하 공연, 음료수 및 맥주 파티, 한성인 천 원의 행복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메인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1부에서는 가수 ‘동경소녀’와 인디밴드 ‘소심한 오빠들’이 무대를 꾸몄다. 2부에서는 교내 가요제인 ‘슈퍼스타 한성’과 ‘동아리 축하 공연’이 열렸다. 그중 ‘슈퍼스타 한성’은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기계 점수가 높게 나온 학생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동아리 축하 공연’ 시간에는 왕산악, 들불 등 교내 동아리들이 참여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공연 기획과 행사장 질서 유지는 총학생회 ‘참’이 담당,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규율대를 조직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이외에도 대학본부가 학생들에게 맥주 및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가 하

면, 학생식당 업체 ‘산들푸드’는 냉모밀, 소금구이덮밥 등 일부 메뉴를 1,000원에 판매하는 ‘한성인 천 원의 행복’을 진행했다. 또한 상상마당 주변에는 스테이크나 피자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도 설치됐다.

한편, 학생장학팀은 지난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축파티 만족도를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참석자 386명 중 84.2%가 행사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본교,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선정

본교는 지난 10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자로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개월이며,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서울 소재 대학과 서울형 강소기업 등을 연계하여 졸업(예정)자 및 지역구직 청년에게 기업에서의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학 측은 졸업(예정)자가 강소기업에서의 일을 경험할 기회를 얻고, 강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교는 졸업자·수료자·졸업예정자 50명을 선발해 3개월(2018년 11월~2019년 1월)간 일경험을 제공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하여 일경험 기간 중 인건비(1인당 월 220만원, 4대보험료 포함)를 지급할 예정이다.

## 스쿨쉐어링(쉐어잇(주)) 발전기금 천만 원 기부

본교는 지난 10월 17일 교내 상상관 총장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이상한 총장, 변대중 총무처장, 박재홍 입학홍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쉐어링(쉐어잇(주))박사준·최혜훈 대표가 한성대 발전을 위해 천만 원을 전달했다. 본교는 2017년 스쿨쉐어링과 계약을 맺어 교내 유휴 시설물을 위탁 관리해오고 있다.

## 〈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 통해 학생 고민 해결



본교는 지난 10월 11일 교내 레스토랑(밀가옥)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2학기 ‘총장과의 점심식사(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총장에게 전달해 대학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11일 점심은 선착순으로 선발된 9명이 함께했다. 점심 소통을 통해 재학생들은 학업

과 진로 등에 대해 총장과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었으며, 총장은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궁금해 하던 트랙제, 신규 장학제도, 우리 대학 인제상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한 총장은 “최근 성적장학금이 한성인재장학금으로 개편되었고, 학생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 한성 e-포트폴리오(HOPE ; Hansung, the Opportunity of Potentiality Enhancement)가 개설되었으며, 단과대별 행정사무실이 통합되는 등 대학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면서 “학생이 가장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시간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장과의 점심식사는 2017년부터 학기당 3회씩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올해는 단과대학별로 신청자를 모집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2018년 2학기 총장과의 점심식사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11월까지 총 3회(10월 11일, 11월 1일·9일)에 걸쳐 마련되었다.

## ‘무한상상’ 한성대 공학경진대회 개최



본교 공과대학이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교내 체육관에서 공학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교내 수업과 학습소모임,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습득한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한 작품 37점이 출품됐다. 2005년 시작해 14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는 IT 공과대학 학생 38개팀 146명이 출전해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21일 대회에 참석한 이상한 총장이 ‘DC&M’팀(팀장 전혜원)의 가상현실을 이용한 안전한 과학실험 게임을 VR 헤드셋을 쓰고 체험했다. ‘DC&M’팀은 이번 대회 대상을 차지했다.

# Hansung News



## 한디원 신재우, 한동희 학생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본교 한디원 패션비즈니스전공에 재학중인 신재우, 한동희 학생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4차산업혁명 환경 속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디원 신재우, 한동희 학생은 빅데이터기반 패션 SNS 어플리케이션 아이템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되었다. 청년 지원 사업답게 만 39세까지 지원 대상으로 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에 전국 청년사업가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경쟁 속

에서 최종 선정된 것에 신재우 학생은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평소 필요성을 느껴왔던 빅데이터기반 패션SNS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화에 첫 발을 디딤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번 선정된 빅데이터기반 패션SNS 어플리케이션(이름 페르소나)는 라이프스타일, 패션스타일을 토대로 이용자들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패션SNS로 과도한 광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패션잡지의 기능을 대신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형 패션플랫폼이다. 젊은 세대에서 생산되는 패션 담론은 지금까지 외국의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을 통해 생산, 확산, 공유되고 있었는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K패션과 K뷰티를 담아낼 수 있는 전문화된 패션SNS 개발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선정된 이후 펀딩 제안을 받을 정도로 혁신적이고 참신

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고 있다.

## 셀프 브랜딩 전수 위한 제8회 상상력토크 개최



본교는 지난 10월 18일 교내 미래관 DLC (Digital Learning Center) 강당에서 변종민 뉴발란스 한국지사장을 초청해 '제8회 상상력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에서는 '미래를 보다(Forward Looking):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변종민 한국지사장은 밈(MEME)을 강조하면서 "밈이란 문화를 매개로 사람 사이에서 공유되는 생각, 행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의 밈을 찾는 과정이 곧 나를 잘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봉사단 허브(H.U.V)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 동참

본교 사회봉사단(Hansung University Volunteer service center) 허브(H.U.V)는 지난 10월 15일 지역사회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등하곶길에 이용되는 도로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획되었으

며, 허브 소속 학생들은 우리 대학 진입로 및 인근 주택가 골목의 환경 미화를 위해 쓰레기, 담배꽂초, 전단지 등을 수거하였다. 허브는 향후에도 지역사회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한 등하곶길을 제공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학생 30명으로 구성된 허브는 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청소년 대상 교육나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연탄봉사, 김장봉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한성대의 새로운 시그니처

한성대를 대표할 새로운 시그니처가 제작되었다. 기존의 시그니처가 홍보기념품과 제작물 사용에 있어 굴곡현상 또는 찌그러짐 등의 제한점이 있어 홍보기념품 외형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그니처를 추가 제작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시그니처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신규 제작한 HSU는 홍보제작물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8회 삼선동 선녀축제 참여

본교는 지난 10월 14일 한양도성, 삼선교 분수마루 등 삼선동 인근에서 열린 '제8회 삼선동 선녀축제'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상한 총장, 박재홍 입학홍보처장을 비롯하여 한성대



홍보대사 하랑·한성이, 공연예술 동아리 MGOP(관현악단), TRIAX(힙합), 4호선마이크(버스킹) 등의 소속 학생 약 50여명이 축제를 빛내주었다. 선녀축제는 '삼(三)선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따라 내려온 삼(三)선선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여 지어진 삼선동의 유래를 복원한 뜻깊은 축제이다. 이러한 마을의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애乡심을 높이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다. 본교는 2011년부터 올해로 8년 동안 선녀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고 있다.



## 개교 46주년 기념식 개최

본교는 지난 10월 2일 교내 미래관 DLC(Digital Learning Center) 강당에서 개교 4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개교기념일인 5일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는 한성학원 이종훈 이사장과 한성대 이상한 총장, 교수 및 교직원, 학생 등 80여 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나누었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장기근속자 포상, 기념사, 폐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식사 및 국민의례 후 10년·20년·30년 장기근로 근속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교수 7명과 직원 5명 등 총 12명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 Hansung News

## 취업페스티벌 정인영 · 오효주 아나운서 초청



지난 10월 10일 교내 미래관 DLC 강당에서 정인영 전 KBSN 아나운서와 오효주 KBSN 아나운서를 초청, 아나운서에게 듣는 진로와 화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한성대 2018년 진로 · 취업 페스티벌 중 하나로 기획됐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인영 아나운서와 오효주 아나운서가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강연자는 아나운서 진로 선택까지의 진로 탐색 이야기와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화법 등을 설명했다.

진로 · 취업 페스티벌은 10월 11일까지 이어졌으며, 직업인으로서 정치인을 만나다(송대식 전 성북구청장), 진로설계를 위한 융합분야 진로탐색(이러랩 최희정 강사),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대학생 역량개발 특강(한국취업진로협회 황주경 강사)과 졸업생 직무 멘토링 등이 포함되었다.

## 외국인 재학생 제4회 서울시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에서 수상

본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외국인 재학

생이 지난 10월 2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서울시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에 출전, 왕약흔 학생이 서울시장상(살롱업스타일부분)을 조연 및 학호철 학생이 특별상(살롱업스타일부분, 창작트레이머리부분)을 수상하였다.

서울시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는 매년 서울특별시와 (사)대한미용사회 서울시협회의 주최로 열리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600여 명의 미용인들이 참가하였다.

대회 당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미용학과), (주)바이에랑 및 (주)메딕과 함께 한성뷰티체험부스도 운영하였고, 헤어스타일링, 특수 분장, 피부기기 체험 등을 진행하였다.



## 한디원 패션디자인과 2018 졸업 패션쇼, '2018 ME:XTURE'

본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패션디자인과의 2018 졸업 패션쇼 '2018 ME:XTURE'가 지난 10월 31일 강남섬유센터 열렸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이번 졸업 패션쇼의 주제 '2018 ME:XTURE'는 '합치다, 섞이다'라는 뜻의 'Mixture'를 이용한 것으로, '여러 학생들이 지닌 각각의 색이 모이고 합쳐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은 연출부터 음악, 무대, 브로셔 제작

및 홍보까지 직접 기획하였고, 높은 완성도를 위해 YG Kplus의 수준 높은 모델을 출연시켰으며, 여러 학교 및 기업과의 협찬을 진행하였다. 이번 쇼에서는 40여 명의 졸업생들이 작품을 선보였고, 5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 창업지원단 2018학년도 2학기 창업캠프 개최



본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0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창업캠프를 개최하였다.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총 3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날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강, 팀빌딩, 창업아이템 도출에 대한 멘토링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창업기업의 마케팅 전략 특강, 사업계획 수립 멘토링, 사업계획 발표 등이 이어졌다.

## 창업지원단 지식재산교육센터 2018년 2학기 지식재산(T2S) 캠프 개최

창업지원단 지식재산교육센터는 지난 9월 28

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포천 아도니스 CC에서 지식재산(T2S)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배양하고 지식재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무역학과, 행정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등 총 9개 전공 소속 22명의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첫째 날에는 지식재산 특강과 아이디어 도출 멘토링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특허명세서 작성 멘토링과 특허출원 실습 멘토링이 이어졌다.

## 단과대학별 학과사무실 통합 이전 실시

본교는 지난 9월부터 학과/전공별 학과사무실을 단과대학별 교학실로 변경, 통합 운영하고 있다. 기존 20여개 학부(과)에서 45개의 트랙으로 학사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트랙 간 효율적인 업무 조정 및 인력 운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의 트랙 변경이 수시로 가능함에 따라 학사 상담 등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30여개로 분리되어 있던 학부(과) 사무실을 5개의 단과대학 교학실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이 통합사무실에서 단과대학장, 교학팀 직원 및 학부(과) 조교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학과사무실 통합으로 단과대학 중심의 독립적인 학사 행정 토대가 구축되어, 트랙제 학사구조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행복봉사단 미용봉사 진행

본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행복봉사단

은 지난 9월 19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사)해맑음보호작업시설에서 미용봉사를 진행하였다. 행복봉사단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권오혁 교수, 이정민 교수 등 교수진과 재직자 전형 3학년 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이다. 학생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헤어 커트 및 드라이 시술 등 미용봉사를 진행하였고, 봉사가 끝난 후 교수 및 학생들은 시설 근무자들과 떡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도 나누었다.

## 국제교류원 언어교육센터 한국어과정 외국인 유학생 엠버서더 결연식 개최

본교 국제교류원 언어교육센터는 지난 9월 19일 미래관 DLC에서 2018학년도 2학기 28기 엠버서더 결연식을 개최했다.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동안 한성대 학부 재학생과 언어교육센터 한국어과정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서로 만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외국인인 한국인에게, 한국인은 외국인에게 서로의 문화를 전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엠버서더 결연식에서는 1대 1로 매칭된 한성대 재학생 68명과 한국어과정 유학생 68명 총 136명이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상상력인재학부, 제7회 상상력토크 및 제2회 소셜데이 행사 개최

지난 9월 18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상상력인재학부 재학생 대상 '제7회 상상력토크(1부)'와 '제2회 소셜데이(2부)'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1학년 230명과 2학년 선배 80명이 참가하였고,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재학생이 2학년 선배의 조언을 참고해 전공트랙 탐색을 하는 동시에 학우 간 공동체 의식 및 협동적 활동을 배양할 수 있었다. 상상력토크는 2017년을 시작으로 분기마다 진행돼 현재까지 7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상상력인재학부를 비롯한 4개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개설된 전공트랙의 특징과 전공트랙의 선택 기준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순호 달리웍스 대표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미래기술과 필요한 인재상(Internet of Possibilities)'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상상력토크에 이어 제2회 소셜데이 행사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단과대학 학장과 담당교수 및 해당 전공 학생들은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올 1학기 동안 경험한 여러 분야 전공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 자신의 전공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 Hansung News

## 학술정보관,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수행



본교 학술정보관은 지난 9월 15일, '2018 성북 책모꼬지(Book Festival)' 행사에서 본교 동아리 '해랑사리우' 소속 학생 21명과 함께 성북구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동아리 학생들은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작도넷)'에서 진행하는 '어린이한책체험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술정보관의 아웃리치서비스를 이행하였다. 올해 어린이 책(악당이 사는 집)으로 선정된 도서를 테마로 7개의 체험 마당이 준비되었고, 학생들은 참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타투, 페이스페인팅,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술정보관은 지난 7월 성북구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작도넷과 MOU를 체결하였고, 이번 책모꼬지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8개 프로그램에 30명의 학생을 파견하여 아웃리치서비스를 완료할 계획이다.

## 외국인 유학생 독도 포럼 참가 및 울릉도와 독도 탐방

본교 국제교류원 재학 외국인 유학생 마르암(이란), 보타이니(모로코), 솔로몬(우간다), 구

릉벌사(네팔) 4명은 2018 독도 KIS(Korea International Student) G100 Summit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 포럼(9월 8일) 및 울릉도·독도 탐방(9월 14일~16일)에 참여했다. KIS G100 Summit(한국 외국인 유학생 100개국 대표자 회의)은 경상북도와 교육부, 내일신문이 주최하고 독도재단이 주관하며,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을 위한 '세계 평화 논의의 장'이다. 본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표하여 참가한 구릉벌사네팔, 경영학부 4학년)를 비롯하여 본교 외국인 유학생들은 독도를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 청년들의 전진 기지로 만들기 위한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제 9회 융합기초프로젝트 '해커톤' 진행

본교는 해커톤 프로그램의 최종발표 결과물 제작을 위해 제9회 융합기초프로젝트 해커톤 프로그램을 교내 상상관 체육관에서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아이디어 공유대회는 무박 2일 합숙 형태로 진행되었고 본교 재학생 14명을 비롯하여 성균관대·서울과학기술대학생 등 69명이 참가했다.

융합기초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고차원적 학습 경험과 도전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 디자인 사고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역

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성균관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타 대학 학생들과의 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본교 학생들이 인간관계를 넓히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 당면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하여 유의미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에서는 경영학과, 사회과학부, 역사문화학부, 패션학부, 회화과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 중인 14명 재학생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성균관대, 서울과학기술대 학생들과 함께 13개 팀에 배치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공중전화부스 재활용, 화재시 대피로 찾기를 돕는 형광라인 표시, 자전거 정보가 포함된 지도 앱을 이용한 교통정체 해결, 화재 비상벨을 포함한 접이식 의자 개발 등 다양 각색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해 프로젝트 진행했다.

## 복학생 학교 적응 위한 'Return to Hansung' 워크숍 개최



본교는 2학기 개강을 맞아 공백기가 있었던 복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Return to Hansung' 워크숍을 지난 9월 11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입대 혹은 개인사정 등으로 휴학을 했던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워크숍을 통해 한자리에서 학교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대학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

획됐다. '복학생 워크숍, Return to Hansung'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5회째 진행되는 워크숍으로 교육혁신원, 학생처 취업지원팀, 진로상담부, IPP사업단, 학술정보관 등 학생지원 부서의 협력을 통해 달라진 학사, 진로 및 취업 정보, 일학습병행제 및 장기현장실습 안내 등 다양한 정보 및 복학 후 바뀐 제도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2018년 성북동문화재야행 체험프로그램 진행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는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2018년 성북동문화재야행에 참가하여 한복머리장식(배씨댁) 만들기 와 전통문양 페인팅체험을 진행하였다. 성북동 문화재야행은 성북문화원이 주관하고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 후원하는 행사로, 성북동에 산재한 문화재의 이야기를 담아낸 가을밤의 여행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야행을 통해 성북동의 문화재·문화시설을 가깝게 관람하고, 체험·공연·투어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고즈넉한 전통과 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었다.

## 한디원 제주도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실시

한디원은 지난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한국모델협회 및 한국성우협회와 함께 제주도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실시하였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고등학교 15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패션모델, 성우 등 다양한 예체능 분야의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주동여자중학교 14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패키지디자인, 동화일러스트작가, 웹코딩, 광고디자인 등의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하였다.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성과 세미나 개최

본교 국제교류원 언어교육센터가 지난 10월 13일 교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교류원이 특성화 전략 과제로 삼은 '2018년 성북구 다문화가족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을 알리고, 유관 기관과 다문화 사업의 성과를 교류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는 본교 재학생 및 교수를 비롯, 성북구 다문화가족 구성원, 성북구청·경문고·한국어교육기관 담당자 및 기타 다문화가족



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박선옥 한국어교육과정 주임교수가 '다문화가족 화합 성장 프로그램 및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개선 방안'을 안윤숙 한국어교육과정 강사실장이 '멘토링 활동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 성과'를 박범철 경문고 교사가 '경문고 따뜻한 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발표했다.

## ROTC 1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본교 ROTC 1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9월 7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었다. 1984년에 처음 '한성대ROTC'가 창설된 이후, 2018년 현재 약 900여 명의 학군장교가 배출되었다. 한성대 ROTC 창설을 위해 노력하신 원로교수님과 교직원 그리고 후배 ROTC 인들이 이날의 주인공인 한성대 ROTC 1기 선배들의 임관 30주년을 축하하였다.

# 내 마음이 담긴 기숙사 상상빌리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상상빌리지 기숙사 기부금으로 표현해 주세요

## 상상빌리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2,048평 규모입니다.  
2인실 162개, 1인실 3개, 세미나실 2개, 라운지 2개, 독서실(연람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회의실, 행정실 등이 조성됩니다.

### | 상상빌리지 기부금 |

**기간** 2018. 5. ~ 준공식까지

**대상**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동문, 개인, 기업 등

**기부방법**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자(10만원), 독서실 테이블(50만원), 휴게실 기자재(100만원) 등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 비품 및 기자재 기부



### | 상상빌리지 기부자 예우 |

기부금액에 따라 지정한 기숙사내의 교육시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10억 이상	지정한 층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3억 이상	휴게라운지 / 세미나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1억 이상	지정 호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5천만원 이상	체력단련실 기자재 전체 기부	1백만원 이상	휴게실 기자재 기부
3천만원 이상	탁구장 기자재 전체 기부	50만원 이상	침대 기부
1천만원 이상	세미나실 기자재 기부	20만원 이상	독서실 책상 및 의자 한 세트 기부
5백만원 이상	라운지 기자재 기부	10만원 이상	독서실 책상 혹은 의자 기부
10만원 미만	상상빌리지 외부벽돌 기부		

※ 1천만원 이상 기부한 회사 및 업체에게는 학교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동안 광고를 게재

### | 상상빌리지 기부자 세제혜택 |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내 100% 세액공제 기부금 2,000만원 이내 세액공제율 15% 적용 (단, 기부금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 50% 한도내 전액 소득공제



## 상상빌리지 기부금 약정서

성명(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개인		
	주인(사업자)등록번호 <small>※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본교 교직원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small>		
기부인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과정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입학년도:	전공:
약정인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총장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소속: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핸드폰	
우편물/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발급 희망 <input type="checkbox"/> 학교에서 발행하는 자료 수령희망		
기부(약정)액	금 원 정(₩ )		
기부물품			
한성사랑 지정	<input type="checkbox"/> 1. 10억원 이상: 지정한 층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input type="checkbox"/> 2. 3억원 이상: 휴게라운지/세미나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input type="checkbox"/> 3. 1억원 이상: 지정 호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input type="checkbox"/> 4. 5천만원 이상: 체력단련실 기자재 전체 기부 <input type="checkbox"/> 5. 3천만원 이상: 탁구장 기자재 전체 기부 <input type="checkbox"/> 6. 1천만원 이상: 세미나실 기자재 기부 <input type="checkbox"/> 7. 5백만원 이상: 라운지 기자재 기부 <input type="checkbox"/> 8. 1백만원 이상: 휴게실 기자재 기부 <input type="checkbox"/> 9. 50만원 이상: 침대 기부 <input type="checkbox"/> 10. 20만원 이상: 독서실 책상 및 의자 한세트 기부 <input type="checkbox"/> 11. 10만원 이상: 독서실 책상 혹은 의자 기부 <input type="checkbox"/> 12. 10만원 미만: 상상빌리지 외부벽돌 기부		
기간	<input type="checkbox"/> 일시납부	년 월 일까지 납부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회)분납	월납부액 원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기업은행: 689-000276-01-946	예금주: 한성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급여공제	<small>※ 본교 교직원만 해당됨.</small>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입학홍보처 대외홍보팀 (우촌관 6층, 603호, TEL: 02-760-4209, FAX: 02-760-4207)	
예우동의	<input type="checkbox"/> 예우선물, 카드, 책자 수신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수신 <input type="checkbox"/> SMS 수신 <input type="checkbox"/> 기부자 명단 게재		

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기부금영수증발급, 기부자예우를 위한 용도 이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 약정서 상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기부금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인: (날인/서명)

# 2019학년도 한성대학교 정시 모집요강

## 1.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사항)

### 2019학년도 정시 전형요약 및 모집인원

구분	정원내/외	전형명	모집인원(명)		(B)-(A)	비고	
			2018 (A)	2019 (B)			
정시	정원내	가군	수능위주	120	241	121	
			실기위주	37	37	0	
		다군	수능위주	218	93	-125	
			실기위주	28	0	-28	
	정원외	가군	농어촌학생	1	1	0	예술학부(동양화 1명)
정시 모집인원			404	372	-32		

### 2019학년도 정시 주요사항

구분	내용	주요사항						비고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 방법	<table border="1"> <tr> <td>모집단위</td> <td>국어</td> <td>수학</td> <td>영어</td> <td>탐구 (1과목)</td> </tr> <tr> <td>상상력 인재학부</td> <td>40% 또는 20%</td> <td>40%또는 20% (가형10점)</td> <td>25%</td> <td>15%</td> </tr> <tr> <td>예술학부, ICT디자인 학부(실기)</td> <td>40%</td> <td>-</td> <td>40%</td> <td>20%</td> </tr> </table>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상상력 인재학부	40% 또는 20%	40%또는 20% (가형10점)	25%	15%	예술학부, ICT디자인 학부(실기)	40%	-	4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열(문·이과)구분 없이 수능 100%선발</li> <li>수학가형 응시자 10점 가산점 부여</li> </ul>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																	
	상상력 인재학부	40% 또는 20%	40%또는 20% (가형10점)	25%	15%																	
	예술학부, ICT디자인 학부(실기)	40%	-	40%	20%																	
영어 등급별 반영 방법	<table border="1"> <tr> <td>등급</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d>8</td> <td>9</td> </tr> <tr> <td>반영 점수</td> <td>100</td> <td>97</td> <td>94</td> <td>80</td> <td>70</td> <td>55</td> <td>40</td> <td>25</td> <td>10</td> </tr> </table>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 점수	100	97	94	80	70	55	40	2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영비율별 적용 방법 : 영어 1등급 학생의 30% 반영비율의 경우 300점 반영</li> </ul>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 점수	100	97	94	80	70	55	40	25	10													
한국사 영역 반영	한국사 영역 등급별 가산점 부여																					
정시	미술 실기 (동양화, 서양화, ICT디자인학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변경	<table border="1"> <tr> <td>모집 구분</td> <td>전형유형</td> <td>수능</td> <td>실기</td> </tr> <tr> <td rowspan="2">가군</td> <td>동양화, 서양화(일반학생)</td> <td>40%</td> <td>60%</td> </tr> <tr> <td>동양화(농어촌)</td> <td>40%</td> <td>60%</td> </tr> </table>	모집 구분	전형유형	수능	실기	가군	동양화, 서양화(일반학생)	40%	60%	동양화(농어촌)	40%	60%									
	모집 구분	전형유형	수능	실기																		
가군	동양화, 서양화(일반학생)	40%	60%																			
	동양화(농어촌)	40%	60%																			

## 2019학년도 정시 성적 반영 방법

모집 구분	전형유형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실기 고사	서류 전형	면접 고사	반영비율 (총점)	비고	
가군	일반학생	상상력인재학부(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예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40% (400점)	60% (600점)	-	-	100% (1,000점)		
		예술학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40% (400점)	60% (600점)	-	-	100% (1,000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간)/ 사회과학부(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간)/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주간)/ IT공과대학(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농어촌학생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간)/ 사회과학부(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간)/ IT공과대학(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예술학부(동양화)	40% (400점)	60% (600점)	-	-	100% (1,000점)		
	특성화고교 졸업자	사회과학부(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간)/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주간)/ IT공과대학(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다군	일반학생	상상력인재학부(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ICT디자인학부(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ICT디자인학부(야간)	60% (600점)	-	-	40% (400점)	100% (1,000점)	♣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야간)/ 사회과학부(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간)/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야간)/ IT공과대학(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평생 학습자전형 학생		법·행정학과(야간) 호텔외식경영학과(야간) 뷰티디자인학과(야간)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간)				학생부 (40%)+ 서류평가 (60%)		♣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법·행정학과(야간) 호텔외식경영학과(야간) 뷰티디자인학과(야간)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간)				학생부 (40%)+ 서류평가 (60%)		♣	
농어촌학생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야간)/ 사회과학부(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간)/ IT공과대학(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ICT디자인학부(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특성화고교 졸업자		사회과학부(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간)/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야간)/ IT공과대학(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ICT디자인학부(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 ♣ 모집단위의 경우 수시모집 미충원시 선발

## 2. 모집단위(정원) 및 전형별 모집인원

### | 일반학생 전형(수능) |

모집단위	개설 학부트랙(전공)	정시 기준	정시 다군
상상력인재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b> 영미문학문화, 영미언어정보, 한국어교육, 문학문화콘텐츠, 글로벌역사, 역사문화콘텐츠, 도서관정보문화, 디지털인문정보학</li> <li>• <b>예술학부</b> : 이민 · 다문화</li> <li>• <b>사회과학부</b> 국제무역, 글로벌비즈니스, 기업 · 경제분석, 금융 · 데이터분석, 공직진출, 법&amp;정책, 부동산자산관리, 스마트도시계획·환경비즈니스, 벤처경영, 기업경영, 회계·재무경영</li> <li>• <b>글로벌패션산업학부</b>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패션크리에이티브디렉션</li> <li>• <b>IT 공과대학</b> 컴퓨터공학부 : 모바일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디지털콘텐츠 · 가상현실, 웹공학 기계전자공학부 : 기계설계, 기계자동화, 전자, 정보시스템 IT융합공학부 : 지능시스템,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ICT융합엔터테인먼트 스마트경영공학부 : 시스템경영공학, 생산물류시스템, 컨설팅</li> </ul>	상상력인재학부 (주간) 241명	상상력인재학부 (야간) 8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자인대학</b> ICT디자인학부 : 뉴미디어광고 ·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상 · 애니메이션디자인, 제품 · 서비스디자인, 브랜드 · 패키지디자인, 인테리어 · 코디디자인, VMD · 전시디자인</li> </ul>		ICT디자인학부 (주간) 4명
<b>총 계</b>		<b>정시 기준 241명</b>	<b>정시 다군 93명</b>

※ 상상력인재학부의 경우 단과대학/학부 소속이 없는 **자율전공개념**으로, 고교 문 · 이과 계열 구분 없이 수능 100%로 선발, 2학년 진학 시 단과대학/ 학부/ 트랙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민 · 다문화트랙과 위 개설 학부트랙(전공)에 명시되지 않은 예술학부전공의 경우 제1트랙(전공)으로 선택 할 수 없습니다.

※ 트랙(전공)선택 관련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학 후 학사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학생 전형(실기) |

모집단위	개설 학부트랙(전공)	정시 기준	정시 다군
예술학부 (주간)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동양화 : 13명 서양화 : 13명 동양화 : 1명(농어촌학생전형) 한국무용 : 4명 현대무용 : 3명 발레 : 4명	
<b>총 계</b>		<b>38명 (정원의 농어촌 1명 포함)</b>	

※ ICT디자인학부(주) : 수능100%전형 선발(실기고사 미 실시)

※ 2019학년도 수시 미충원 모집단위 및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정시전형의 최종 모집인원은 수시 등록 마감 후, 2018년 12월 28일(금)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2019 Yearly Planner HANSUNG UNIVERSITY



## 1 JANUARY

01	신정
02	시무식
03	
04	
05	
06	소한 / 음12.1
07	
08	
09	
10	
11	
12	
13	
14	대전공 이수확인이수구분변경 신청, 교육과정변경으로 인한 이수인정 신청 ~ 1.16
15	겨울계절학기 종강
16	
17	
18	
19	
20	대한 / 음12.1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 FEBRUARY

01	대전공 신청, 대전공변경 신청 ~ 2.8 / 휴 · 복학 신청 ~ 2.27
02	
03	
04	입춘
05	설날 / 음1.1
06	
07	
08	
09	
10	
11	
12	
13	4학년 수강신청
14	3학년 수강신청
15	2학년 수강신청
16	
17	
18	수강신청 정정(1차) 재학생, 복학생
19	우수 · 정월대보름 / 음1.15
20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1	2019학년도 전반기 학사협의회
22	1학기 등록 ~ 2.28
23	
24	
25	신입생, 편입생 수강신청
26	
27	
28	

## 3 MARCH

01	삼일절
02	
03	
04	2019학년도 1학기 개강 / 입학식 / 수강신청 정정(2차)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신입생 ~ 3.8
05	
06	경칩
07	음2.1
08	
09	
10	
11	
12	
13	
14	수강신청 포기 ~ 3.15
15	
16	
17	
18	1학기 초과학기자 등록 ~ 3.22
19	
20	
21	춘분 / 음2.15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4 APRIL

01	조기졸업 신청, 학점포기 신청 (4학년) ~ 4.5
02	수업일수 30일
03	
04	
05	식목일 · 청명 / 음3.1
06	한식
07	
08	
09	
10	
11	
12	
13	
14	
15	대전공 취소신청 ~ 4.19
16	
17	
18	
19	음3.15
20	곡우
21	
22	중간고사 ~ 4.26
23	
24	
25	
26	
27	
28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29	
30	

## 5 MAY

01	일반 전과신청 ~ 5.8	근로자의 날
02	수업일수 60일	
03		
04		
05		어린이 날 / 음4.1
06	트랙선택 신청 ~ 5.24	대체공휴일 · 입학
07		
08		어버이 날
09		
10		
11		
12		부처님 오신 날
13		
14		
15		스승의 날
16		
17		
18		음4.15
19		성년의 날
20		소만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6 JUNE

01	수업일수 90일 / 강의만족도, 교육만족도 조사 ~ 6.20	
02		
03	트랙변경 신청 ~ 6.10	음5.1
04		
05		
06		현충일 · 망종
07		단오
08		
09		
10	기말고사, 보강 주 ~ 6.21	
11		
12		
13		
14		
15		
16		
17		음5.15
18		
19		
20		
21	1학기 종강	
22		하지
23		
24	하계방학 시작일 / 여름계절학기 개강	
25		
26		
27		
28		
29		
30		

# 2019 Yearly Planner HANSUNG UNIVERSITY



## 7 JULY

01	
02	
03	음6.1
04	
05	
06	
07	소서
08	다전공 이수확인/이수구분 변경 신청, 교육과정변경으로 인한 이수인정 신청 ~ 7.10
09	
10	
11	
12	여름계절학기 종강 초복
13	
14	
15	
16	
17	제한절 / 음6.15
18	
19	
20	
21	
22	중복
23	대서
24	
25	
26	
27	
28	
29	
30	음8.1
31	

## 8 AUGUST

01	다전공 신청, 다전공 변경 신청 ~ 8.8 / 휴 · 복학 신청 ~ 8.28
02	
03	
04	
05	
06	
07	칠석
08	입추
09	
10	
11	말복
12	
13	
14	
15	광복절 / 음7.15
16	
17	
18	
19	4학년 수강신청
20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3학년 수강신청
21	2학년 수강신청 / 2019학년도 하반기 학사협의회
22	1학년 수강신청
23	2학기 등록 ~ 8.30 / 수강신청 정정(1차) 처서
24	
25	
26	
27	
28	
29	
30	음8.1
31	

## 9 SEPTEMBER

01	
02	2019학년도 2학기 개강 / 수강신청 정정(2차) ~ 9.6
03	
04	
05	
06	
07	
08	백로
09	
10	
11	
12	
13	추석 / 음8.15
14	
15	
16	수강신청 포기 ~ 9.17
17	
18	2학기 초과학기자 등록 ~ 9.24
19	
20	
21	
22	
23	추분
24	
25	
26	
27	
28	
29	음9.1
30	조기졸업 신청, 학점포기 신청 (4학년) ~ 10.4
31	

## 10 OCTOBER

01	수업일수 30일
02	
03	개천절
04	
05	개교기념일
06	
07	
08	한로
09	한글날
10	
11	
12	
13	음9.15
14	다전공 취소신청 ~ 10.18
15	
16	
17	
18	
19	
20	
21	중간고사 ~ 10.25
22	
23	
24	상강
25	
26	
27	
28	음10.1
29	
30	
31	수업일수 60일

## 11 NOVEMBER

01	일반 전과신청 ~ 11.8
02	
03	
04	트랙선택 신청 ~ 11.22
05	
06	
07	
08	입동
09	
10	
11	음10.15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소설
23	
24	
25	
26	
27	음11.1
28	
29	
30	수업일수 90일
31	

## 12 DECEMBER

01	수업만족도, 교육만족도 조사 ~ 12.20
02	트랙변경 신청 ~ 12.6
03	
04	
05	
06	
07	대설
08	
09	기말고사, 보강 주 ~ 12.20
10	
11	음11.15
12	
13	
14	
15	
16	
17	
18	
19	
20	2학기 종강
21	
22	동지
23	동계방학 시작일 / 겨울계절학기 개강
24	
25	성탄절
26	음12.1
27	
28	
29	
30	
31	종무식

# 상상하는 곳 까지가 미래다.

##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

인문·자연계 구분 없이 학생들의 적성을  
먼저 고려해 전공 선택의 기회를 넓힌  
대학 최초의 상상력, 전공트랙제.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으로 거듭날 때 까지

한성의 상상은 멈출 줄 모릅니다.

### 한성대학교 **정시모집** 2019학년도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10:00 ~ 2019. 1. 3(목) 17:00
- 서류접수 : 2019. 1. 4(금) 17:00까지
- 입시상담 : 02)760-5800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참조